

종교성향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조 혜 윤[†]

서강대학교

손 은 정

백석대학교

본 연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일반 집단 간에 (a)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 낙관성, 불안의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b) 변인들 간의 관계를 비교하였고, (c) 종교 성향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 역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총 294명(장애인 부양자 집단 147명, 일반 집단 147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인 부양자 집단은 일반 집단보다 외재적 성향과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낙관성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장애인 부양자 집단의 경우 일반집단과는 달리 외재적 종교 성향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내재적 종교 성향과 불안의 관계에서, 장애인 부양자 집단의 경우에는 부정적 종교적 대처와 긍정적 종교적 대처 그리고 낙관성이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일반 집단에서는 종교적 대처 중 부정적 대처, 그리고 낙관성이 매개 역할 하였다. 본 연구가 추후 연구 및 상담 실제에 주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 낙관성, 불안, 스트레스, 장애인 부양자

* 본 연구는 손은정의 지도로 조혜윤이 작성한 2008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종교성향과 심리적 불안과의 관계: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조혜윤,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인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삼성래미안 423-604
Tel : 02-2632-4934, E-mail : drcho45@nate.com

최근 들어 스트레스는 점점 더 급증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적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rk, Goldman, & Epstein, 1995; Lu, 1994; Park, Cohen, & Herb, 1990). 이에 많은 학자들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그 중에서도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은 크게 개인적 대처자원과 대리적 대처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대처자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힘을 이용하여 대처하는 것을 말하며(Folkman & Lazarus, 1990; Stone & Kennedy-Moore, 1992), 대리적 대처자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타인의 힘으로 대처하는 경우로, 대리적 대처자원은 다시 사회적 대처자원과 종교적 대처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전경구, 김교현,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1994; 전경구, 김교현, 1996; Park, et al., 1990; Siegle & Kuykendall, 1990).

종교적 대처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선행 연구들 중 개인적 대처자원이나 사회적 대처차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진데 반해 종교적 대처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종교적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 대한 Gilbert(1989)의 연구에서 78%가 종교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들에 대해서도 73%의 사람들이 종교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ttlin, Wethington, & Kessler, 1990).

Pargament(1997)에 의하면, 종교적 대처란 스트레스나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긍정적인 대처유형과 부정적인 대처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 유형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적인 지원을 구하고, 용서를 베풀며, 절대자와 함께 상황을 해결하려 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며, 용서를 구하고, 종교에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인 종교적 대처 유형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절대자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적 사건에 대해 절대자의 처벌이나 악한 세력의 짓이라고 재평가하며, 절대자의 능력이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종교적 대처유형은 심리적 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argament 등(1994)의 걸프진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94)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낮은 수준의 고통과,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높은 수준의 고통과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Pargament와 Smith, Koenig, Perez의 연구(1998)에서도 오클라호마 시에서 폭탄테러를 겪은 기독교 신자들 중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하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를 부양하는 사람의 경우,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할수록 부양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할수록 불안 및 우울이 높고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Pearce, Singer & Prigerson, 2006). 이처럼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은 경우 종교적

대처를 사용하며, 어떤 종교적 대처 방식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심리적 적응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종교적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종교성향

그렇다면 종교적 대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Pargament(1997)에 의하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문화도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종교적 대처를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향(religious orientation)이 종교적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Pargament(1997)는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이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동기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형태의 대처 방식으로 변형되며, 이 특정한 형태의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보았다. 즉, 그는 종교성향에 따라 종교적 대처 유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종교적 대처 유형은 개인의 종교성향과 심리적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해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다면 종교성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Allport와 Ross(1967)에 의하면 종교성향은 종교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내재적 성향과 외재적 성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외적으로 동기화된 외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활에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가 삶의 목적 그 자체이며 종교를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

을 말한다. 한 개인의 종교 성향이 내재적일수록 절대자와의 관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종교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재적 종교성향의 사람은 상황이나 사건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절대자와 함께 그 사건에 대해 긍정적인 대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외재적 종교 성향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 크게 좌절하게 되며 죄책감이나 절대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종교성향은 종교적 대처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훈(2003)의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은 긍정적 종교적 대처방식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과는 부적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외재적 종교성향은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데 반해, 긍정적 대처방식과는 부적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종교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종교성향은 심리적 성숙 및 안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llport와 Ross(1967)는 외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부적응을 많이 나타내지만 내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외재적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더욱 성숙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허현나(2002)는 내재적 성향이 심리적 안녕(자기 개념, 불안, 우울, 삶의 만족도)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했으며, 김진원(199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재적 성향과 불안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김은정(2006)의 연구에서도 외재적 종교성

향은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종교성향은 종교적 대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종교성향 및 종교적 대처는 심리적 안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Pargament(1997)가 언급했던 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종교성향과 심리적 적응에는 종교적 대처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는 두 변인 간(종교성향과 종교적 대처, 또는 종교적 대처와 심리적 적응, 또는 종교성향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만을 다루었을 뿐, 종교 성향과 종교적 대처,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증상이라는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대처가 종교성향과 심리적 증상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Pargament(1997)가 예측했지만 경험적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낙관성

한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심리적 변인들로 널리 알려진 사회적 지지, 낙관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은 종교적 대처와 함께 여러 연구들에서 연구되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낙관성(optimism)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며, 종교적 대처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다(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 Kolchakian & Sears, 1999; Pearce et al., 2006; Riolli & Savicki, 2003). Scheier와 Carver(1985)는 낙관성이란 미래에 나쁜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라고 정의하였으며, 최근에는 낙관성을 기질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보기 보다는 인지적 평가나 결과 기대와 같은 상황 특수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다(Lazarus, 1993). 선행 연구들에서 낙관성은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Chang, Sanna, & Yang, 2003), 높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고(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issette et al., 2002).

이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낙관성은, Riolli와 Savicki(2003)의 연구에서 종교적 대처와 함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탈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olchakian과 Sears(1999)의 연구에서는 종교적 대처 및 불안과 상당한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 부양에 대한 Pearce 등(2006)의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종교적 대처와 부양에 대한 만족도 및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earce 등(2006)의 연구에서 부양만족도나 부양에 대한 부담과 같은 변인들과 종교적 대처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 효과는 나타났지만, 불안 장애나 우울 장애와 같은 심리적 증상 변인들과 종교적 대처 간에는 낙관성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Kolchakian과 Sears(1999)의 연구에서는 불안은 종교적 대처나 낙관성과 상당한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두 연구에서는 동일하게 종교적 대처, 낙관성,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불

안을 평가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즉, Pearce 등(2006)의 연구에서는 DSM-IV의 진단기준으로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를 진단했기 때문에,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Kolchakian과 Sears (1999)의 연구에서는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부정적 정서의 정도를 살펴보고, 따라서 보다 연속선상에서 불안의 정도의 변화가 종교적 대처나 낙관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를 사용하여 보다 연속선상에서 부정적 정서의 정도의 변화가 종교적 대처나 낙관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와 같이 연속선상에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할 때, 낙관성은 종교적 대처와 부정적 정서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지지 못했던 종교적 대처와 불안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 장애인 부양자 집단

한편,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와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질병이 있는 환자(Koenig, Cohen, Blazer, Kudler, Krishnanm & Sibert, 1995; Oxman, Freeman & Mannheimer, 1995; Tix & Frazier, 1998), 암환자 부양자(Pearce et al., 2006), 혹은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Bradley, Schwartz & Kaslow, 2005; Gall, 2006),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McIntosh, Silver & Wortman, 1993; Park & Cohen, 1993), 전쟁을 겪은 피해자(Pargament et al., 1994)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집단이 일반적인 대학생 집단(Kolchakian & Sears, 1999)보다 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상의 평범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의 집단이 종교성향이나 종교적 대처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더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극한 상황일수록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기 보다는 이를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에 의지하거나 종교적인 도움을 구하게 되며, 이러한 종교적 대처방식이 불안이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과 일반 집단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인가 아닌가에 따라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방식, 낙관성, 그리고 불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에게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장애인을 주로 부양하는 부모에게는 누구보다 과중한 역할부담이 부여되고, 이에 따른 만성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긴장, 불안, 두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장애아를 자녀로 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장애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일반 부모들보다 양육 스트레스나 가족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2003; 양연숙, 2007; 최지현, 2006). 아동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종류를 비교해 보면, 장애 아동 부모는 자녀의 장애 특성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인데 반해,

일반 아동 부모는 학업 성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권영욱, 황경열, 2005). 이와 같은 결과들을 살펴볼 때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장애자라는 사실이 매우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 부모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 자신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임혜용, 1994), 이로 인해 비장애 아동의 부모들보다 낙관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김은연, 2005). 이들은 장애 자녀를 항상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부담 때문에 욕구충족이나 여가선용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이경희, 1993),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을 보고하고 있어(서소희, 1994), 신체적, 심리적 적응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부양자들은 이와 같은 높은 스트레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장애인 부양자는 일반인들에 비해 현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박재국, 허정욱, 2005), 주의 전환, 철수와 같은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경욱, 황경열, 2005). 반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는 사회적 대처나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종교적 대처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박재국, 허정욱, 2005).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적응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김상용, 2007; 최영희, 2003), 장애인 부양자의 종교적 대처와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부양자

의 경우 장애인을 부양하지 않는 일반인들에 비해 비관적인 태도와 정서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낙관성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에 미치는 종교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라서 심리적 적응이나 스트레스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만 살펴보았을 뿐 종교 성향이나 종교적 대처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성향 및 종교적 대처가 낙관성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장애자를 부양하거나 이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경우, 상담자가 이들의 종교적 성향과 가치관이 어떠한지, 어떤 종교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집단에서 종교적 성향과 종교적 대처방식이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야,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종교 성향과 종교적 대처, 낙관성,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장애인을 부양하지 않는 일반 집단의 종교성향 및 종교적 대처, 낙관성, 불안의 수준 및 변인들 간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낙관성, 불안의 정도에 있어서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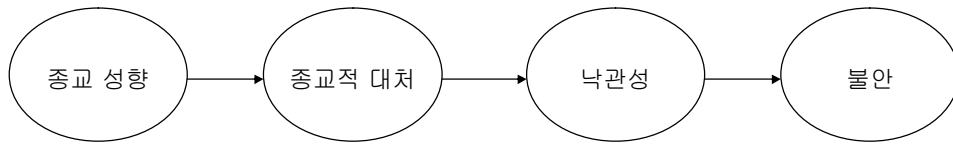


그림 1.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낙관성, 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일반 집단 간 차이를 보일 것인가? 둘째,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 낙관성 불안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반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일 것인가? 셋째, 종교 성향과 낙관성 간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 역할은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반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복지관 및 장애인 학교, 장애인 예배 등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의 부양자들 중 개신교 및 천주교 교인들 180명, 장애인을 부양하지 않는 개신교 및 천주교 교인들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각각 147부가 회수되어 총 294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종교적 대처에 대한 척도는 ‘절대자’에 대한 태도나 관계에 대한 질문들(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구했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인들이나 무종교인들에게는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반신환,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신교나 천주교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 모두가 부양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송경선, 2000; 이경희, 1993; 최연실, 1996), 부모

로서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식이나 형제로서 장애인 부모를 부양하거나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장애인 부양 집단에 포함시켰다. 장애인 부양자 집단의 평균 연령은 45.31세(표준편차 10.79)였으며, 일반 집단의 평균 연령은 평균 41.63세(표준편차 16.25)였다. 그 외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반 집단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도구

종교성향

종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Allport와 Ross(1967)가 개발한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 척도(Intrinsic religious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ubscale)를 사용하였다. 최근 메타 분석에 의한 연구결과에 의하면(Smith & McCullough, 2003), 종교성에 대한 여러 척도들 중 이 척도는 종교적 대처 척도와 함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유일한 척도로 나타나,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척도임이 밝혀졌다. Allport와 Ross(1967)의 연구와 본 척도를 사용한 국내 연구들(박재연, 1994; 심수명, 1993)은 내재적 집단, 외재적 집단, 친종교적 집단, 비종교적 집단 4가지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허찬(2006), 이해령과 이기학(2003), 김은정(2006)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을 나누지 않고 내재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94)

변인	구분	부양자		일반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	20	13.6	29	19.7
	여	127	86.4	118	80.3
학력	초졸 이하	3	2.0	0	0
	중졸	15	10.2	1	.7
	고졸	56	38.1	29	19.7
	전문대/대학 졸	60	40.8	91	61.9
	대학원 이상	11	7.5	24	16.3
	무응답	2	1.4	2	1.4
종교	기독교	135	91.8	143	97.3
	천주교	12	8.2	4	2.7
장애인 성별	남	79	53.7		
	여	68	46.3		
장애 등급	1	59	40.1		
	2	55	37.4		
	3	21	14.3		
	4	3	2.0		
	무응답	9	6.1		
	장애 유형	정신지체	47	32.0	
발달장애		32	21.8		
뇌병변		19	12.9		
지체장애		14	9.5		
뇌성마비		4	2.7		
기타		31	21.1		

적 성향과 외재적 성향의 점수를 각기 따로 계산하여 각 성향의 점수에 따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총 20문항의 척도 중 8문항은 내재적 성향을, 11문항은 외재적 성향을 평가하며, 1문항은 외재적 성향과 내재적 성향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알아보는 데에 사용된다. 20개 문항을 1점에서 4점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혜령과

이기학(2003)의 연구에서 내재적 성향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외재적 성향은 Cronbach's $\alpha=.67$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성향의 신뢰도가 장애인 부양자 집단에서 Cronbach's $\alpha=.75$, 일반 집단에서 Cronbach's $\alpha=.74$ 로 나타났고, 내재적 성향은 장애인 부양자 집단에서 Cronbach's $\alpha=.78$, 일반 집단에서 Cronbach's $\alpha=.80$ 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대처

종교적 대처는 Pargament, Koenig, 그리고 Perez (1998)에 의해 개발된 종교적 대처 척도(The Brief Religious Coping Scales; RCOPE)를 번안하여 평가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척도를 번안한 후 상담심리사 1급과 이종언어자가 이를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의 긍정적 종교대처 항목에는 영적인 지지를 찾음, 영적인 연결을 찾음, 절대자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 용서함,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7가지의 부정적 종교 대처 항목에는 절대자의 처벌이라는 평가, 절대자에 대한 불평, 약한 세력의 방해라는 평가, 영적인 불평, 절대자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종교적 대처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4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0=전혀없다~3=매우많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 방식 점수와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 점수를 나누어 각기 따로 계산하였다. 신뢰도를 살펴보면, Pearce 등(2006)의 연구에서 긍정적 대처는 Cronbach's $\alpha=.91$, 부정적 대처는 Cronbach's $\alpha=.83$ 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대처의 신뢰도가 장애인 부양자 집단에서는 Cronbach's $\alpha=.81$, 일반 집단에서는 Cronbach's $\alpha=.82$ 였으며, 부정적 대처의 신뢰도가 장애인 부양자 집단에서는 Cronbach's $\alpha=.77$, 일반 집단에서는 Cronbach's $\alpha=.81$ 로 나타났다.

낙관성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Scheier, Carver, 그리고 Bridges가 1994년 개정하고 권혜경과 이희경(2004)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낙관성 척도(A Reevaluation of Life Orientation

Test: LOT-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개의 낙관성 측정 문항과 실험 참여자들이 낙관성 측정을 위한 질문지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4개의 여과 문항(fill item)으로 구성되어있다. 낙관성 측정 6문항은 3개의 긍정적 문항과 3개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10점 미만에서 50점까지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김은연(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67$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낙관성의 신뢰도는 장애인 부양자 집단에서 Cronbach's $\alpha=.63$, 일반 집단에서는 Cronbach's $\alpha=.66$ 으로 나타났다. 다른 척도와는 달리 여과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뢰도가 다소 낮아 지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60이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채서일, 2003).

불안

Spielberger, Gorsuch, Lushene(1970)가 정상성인의 불안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안하고 한덕용, 이창호,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상태-특성 불안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들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 환경에서 유발되는 상황적인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상태불안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심리적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40문항 중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한덕용 등(1993)이 보고한 상태불안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 검사의 신뢰도는 장애인 부양자 집단에서 Cronbach's $\alpha=.86$, 일반 집단에서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인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낙관성, 심리적 적응이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반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교성향과 불안, 종교적 대처, 낙관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교성향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반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15.0 for windows가 사용되었다.

장애인 부양 여부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

장애인 부양 여부에 따른 각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t검증 결과, 장애인 부양 여부에 따라 종교성향 중 외재적 성향, 종교적 대처방식 중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 낙관성, 불안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장애인을 부양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장애인 부양자 집단은 일반집단보다 더 높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 부양자 집단은 일반 집단보다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외재적 동기가 더 많으며, 부정적 종교 대처 경향이 더 높고, 미래에 대해 더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과

표 2.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평균 비교를 위한 t-test

변 인	집단	평균(표준편차)	t
종교성향	외재적 성향	장애인부양자 2.53(.47)	4.13***
	일반	2.32(.41)	
종교적 대처방식	내재적 성향	장애인부양자 3.09(.53)	-1.09
	일반	3.16(.47)	
종교적 대처방식	긍정적 종교 대처	장애인부양자 3.11(.54)	-.15
	일반	3.12(.44)	
낙관성	부정적 종교 대처	장애인부양자 2.18(.58)	2.81**
	일반	2.00(.48)	
불안	낙관성	장애인부양자 3.56(.53)	-3.68***
	일반	3.78(.48)	
불안	불안	장애인부양자 2.26(.44)	2.98**
	일반	2.12(.37)	

*p<.05, **p<.01, ***p<.00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방식, 낙관성, 불안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반 집단을 나누어 각각 변인들의 상관을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반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 집단에서는 외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내재적 성향($r=-.30, p<.001$)이 낮았으며, 긍정적 대처방식($r=-.23, p<.01$)을 적게 사용하였고, 부정적 대처방식($r=.28, p<.01$)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낙관성($r=-.19, p<.05$)은 낮아진데 반해, 장애인 부양자 집단에서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장애인 부양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종합

해 볼 때,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구적 목적으로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나, 장애인 부양자의 이러한 외재적 종교성향이 그들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반 집단 모두에서 내재적 성향, 긍정적 또는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 낙관성, 그리고 불안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내재적 성향을 가질수록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 보다는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이에 따라 낙관성이 높아지며, 불안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성향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대처 및 낙관성의 매개효과

표 3. 변인들 간의 상관

		외재적 성향	내재적 성향	긍정적 종교적 대처	부정적 종교적 대처	낙관성	불안
외재적 성향	장애인부양자 일반						
내재적 성향	장애인부양자 일반	.02 -.30***					
긍정적 종교적 대처	장애인부양자 일반	-.03 -.23**	.65*** .64***				
부정적 종교적 대처	장애인부양자 일반	.06 .28**	-.30*** -.26**	-.19* -.18*			
낙관성	장애인부양자 일반	-.14 -.19*	.44*** .30***	.40*** .25**	-.45*** -.46***		
불안	장애인부양자 일반	.03 .10	-.29*** -.27**	-.33*** -.27**	.48*** .43***	-.56*** -.45***	

* $p<.05$, ** $p<.01$, *** $p<.001$

매개효과 분석 방법

종교 성향의 하위요인인 외재적 종교 성향과 내재적 종교 성향이 각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종교적 대처 및 낙관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측 변인이 결과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두번째로 예측 변인이 매개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매개 변인이 결과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 예측변인의 β 계수가 매개변인 추가 시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 매개(full mediation),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매개(part mediation)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결과를 통해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하는지 살펴본 후,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변인들에 대해 회귀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의 회귀계수의 변화를 검증함으로써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상관관계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변인들 중 ‘외재적 종교성향’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건들 중 첫 번째(외재적 종교성향과 불안이 유의미해야 함) 또는 두 번째 조건(외재적 종교성향과 종교적 대처 및 낙관성이 유의미해야 함)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먼저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VIF(1.08~

1.90)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종교 성향의 하위척도인 내재적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에 종교적 대처의 하위척도인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추가로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낙관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표 4의 결과를 보면 장애인 부양 집단과 비장애인 부양 집단 모두 각 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유의하였다. 먼저 장애인 부양 집단을 살펴보면, 종교 성향 중에서 내재적 성향이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주었고($F=13.55, p<.001$), 종교 성향을 통제 한 상태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부정적 종교적 대처 또한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F=20.54, p<.001$). 그리고 종교 성향과 종교적 대처를 통제 한 상태에서 낙관성도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F=24.14, p<.001$). 종교 성향과 종교적 대처, 낙관성이 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는 총 39%였다($R^2=.39$).

단계 1에서 투입된 종교 성향 중 내재적 성향($\beta=-.29, p<.001$)은 불안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단계 2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종교적 대처가 추가로 투입되자 회귀계수($\beta=-.01$)가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단계 2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beta=-.24, p<.05$)는 불안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단계 3에서 낙관성을 추가로 투입하자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beta=.43, p<.001$)는 낙관성을 추가로 투입한 후 여전히 유의미했으나, 회귀계수가 감소($\beta=.30$,

표 4. 장애부양에 따른 불안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부양여부	예언변인	단계 1 β	단계 2 β	단계 3 β	R^2	ΔR^2	변화량 F
장애인 부양자	내재적 성향	-.29***	-.01	.09	.09	.09	13.55***
	긍정적 종교적 대처	-	-.24*	-.17	.29	.20	20.54***
	부정적 종교적 대처	-	.43***	.30***			
	낙관성	-	-	-.40***			
	일 반	내재적 성향	-.27**	-.07	-.03	.07	.07
긍정적 종교적 대처		-	-.16	-.13	.23	.15	14.06***
부정적 종교적 대처		-	.38***	.27**			
낙관성		-	-	-.2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단계 1: 종교 성향(내재적 성향) 투입

 단계 2: 종교적 대처(긍정적 종교적 대처, 부정적 종교적 대처) 추가로 투입

 단계 3: 낙관성 추가로 투입

$p < .001$)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장애인 부양자 집단에서는 긍정적 및 부정적 대처는 내재적 성향과 불안 사이를 완전 매개하였으며, 낙관성은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불안 사이를 완전 매개하였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와 불안 사이를 부분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장애인 부양 집단을 살펴보면, 종교 성향 중에서 내재적 성향이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F=11.44, p < .01$), 종교 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정적 종교적 대처 또한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F=14.06, p < .001$). 그리고 종교 성향과 종교적 대처를 통제한 상태에서 낙관성도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F=11.95, p < .001$). 종교 성향과 종교적 대처, 낙관성이 불안을 설명하는 정도는 총 29%로

($R^2=.29$) 장애인 부양 집단(39%)보다 설명력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단계 1에서 투입된 종교 성향 중 내재적 성향($\beta = -.27, p < .01$)은 불안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단계 2에서 종교적 대처가 추가로 투입되자 회귀계수($\beta = -.07$)가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단계 3에서 부정적 종교적 대처($\beta = .38, p < .001$)는 낙관성을 추가로 투입한 후 여전히 유의미했으나, 회귀계수가 감소($\beta = .27, p < .01$)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 집단에서는 종교적 대처 중에서도 부정적 대처는 내재적 성향과 불안 간을 완전 매개하였으며, 낙관성은 부정적 대처와 불안 간을 부분 매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상적인 상황에 있는 일반 집단 간에 종교 성향의 하위요인인 외재적 성향 및 내재적 성향, 종교적 대처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대처 및 부정적 대처, 낙관성, 불안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종교 성향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종교적 대처와 낙관성이 매개 역할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밝힘으로써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에 대한 집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 부양자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종교 성향 중 외재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종교 자체에 목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적 대처방식 중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이 장애인 부양 집단에서 비장애인 부양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하여 절대자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적 사건에 대한 처벌적 평가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간의 차이는 낙관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장애인 부양자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하여 낙관성이 낮게 나타나 미래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불안 역시 장애인을 부양하는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각 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 내재적 성향을 가질수록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보다는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낙관성이 높으며, 불안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성향, 종교적 대처, 낙관성, 그리고 불안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김진원, 1995; 류성훈, 2003; 허현나, 2002; Brissette et al., 2002; Pargament et al., 1994; Pargament et al., 1998; Pearce et al., 2006).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반 집단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일반 집단에서는 외재적 종교 성향이 내재적 성향, 종교적 대처, 낙관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에 반해, 장애인 부양자 집단에서는 외재적 성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변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장애인 부양자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외재적 성향과 불안이 높게 나타났지만, 상관분석 결과 외재적 성향과 다른 변인들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애인 부양자들은 스트레스라는 상황적 요인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종교를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하는 외재적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외재적 성향의 종교에 대한 추구가 장애인 부양자들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부양자의 경우 가족의 구성원이 장애자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사건이며,

이것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권영욱, 황경열, 2005). 따라서 비관적이며 불안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는 그들의 주의를 전환하고 현실로부터 철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종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종교에 관심을 돌림으로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권영욱, 황경열, 2005; 박재국, 허정욱, 2005). 따라서 장애인 부양자들의 외재적 종교 성향은 적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 소극적인 의미에서 종교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조적으로 일반인들의 외재적 종교 성향은 자신들의 목적(재물, 명예 등)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 부양자의 외재적 종교성향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추론된다.

셋째, 장애인 부양자 집단의 경우 종교 성향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종교적 대처의 긍정적 대처 및 부정적 대처 모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종교 성향 중에서 내재적 성향은 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긍정적 대처는 내재적 성향과 불안 사이를 완전 매개 하였으며, 부정적 대처는 내재적 성향과 불안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적 대처 유형이 개인의 종교 성향과 삶의 주요 사건에 대한 심리적 결과 간의 관계를 매개해 줄 것이라는 Pargament (1997)의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 특히 내재적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종교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이나 스트레

스 상황이 왔을 때 내재적 성향의 사람은 절대자(God)와의 협동, 절대자의 지지를 추구하는 긍정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며, 이에 따라 심리적 불안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재적 성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자책하는 부정적 대처를 사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 사건에 대하여 절대자의 처벌 혹은 악한 세력의 짓이라고 평가하고, 절대자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 되며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된다.

반면, 일반 집단에서는 종교적 대처 중 부정적 대처만이 종교 성향과 불안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재적 성향은 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부정적 대처는 내재적 성향과 불안 사이를 완전 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일반 집단에서는 긍정적 대처가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장애인 부양자 집단에서는 긍정적 대처가 불안에 대한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일반 집단에서 긍정적 대처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일반 집단이 장애인 부양자 집단보다 종교적 대처의 설명이 전체적으로 작았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부양자 집단의 경우에도 긍정적 대처의 매개 효과는 아주 작았으며, 전체적으로 종교적 대처의 설명량이 작았던 일반 집단에서는 긍정적 대처의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애인 부양자 집단과 일반 집단 모두 종교적 대처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낙관성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Kolchakian과 Sears (1999)의 연구에서 불안과 낙관성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Pearce 등(2006)의 연구에서 낙관성이 종교적 대처와 불안 장애를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Pearce 등(2006)의 연구에서는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종교적 대처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이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연속선상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종교적 대처 간의 관계에서는 낙관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가는가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불안의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간의 설명량을 비교해보면, 장애인을 부양하는 집단(39%)은 일반 집단(29%)보다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 낙관성의 설명량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 낙관성이 심리적 적응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적 대처 변인(20%)이 종교 성향(9%)이나 낙관성(10%)에 비해 불안을 예측하는 설명량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이와 동일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경우 이들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줄이고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에서 종교를 가진 내담자의 경우, 이들의 영성이나 종교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종교적 배경과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현재 내담자가 겪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내담자의 종교적 성향과 대처방식을 더욱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외재적 종교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종교성향은 내담자의 심리적 적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상담자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상담자는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담자가 종교를 수단이나 도구로서가 아니라 종교의 본질인 신과의 관계 자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즉, 내재적 종교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상담자는 종교를 가진 내담자의 경우 현재 직면한 스트레스에 대해 절대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 종교적 대처방식) 절대자의 도움과 지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긍정적 종교적 대처방식), 이를 통해 내담자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측하게 되며(낙관성), 이로 인해 불안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용 (2007).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특수교육연구, 7(3), 53-71.
- 권영욱, 황경열 (2005). 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

-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 비교.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8(1), 45-59.
-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김은연 (2005). 장애아동어머니와 비장애아동어머니의 문제해결능력, 낙관성, 자아강도, 자기 효능감 비교 연구. 가톨릭 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정 (2006). 청소년의 종교성향과 영적 안녕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11), 69-75.
- 김진원 (1995). 종교와 삶의 의미수준, 불안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성훈 (2003). 그리스도인의 종교성향과 종교적 대처가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 박재국, 허정옥 (2005). 지체부자유 부모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체부자유교육학회지: 중복지체부자유교육, 45, 259-280.
- 박재연 (1994). 종교성향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반신환 (2006). 대학생의 종교와 종교적 대처: 내담자의 종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1, 139-155.
-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2003).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69-81.
- 서소희 (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수명 (1993).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자아분화와 죄책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연숙 (2007). 장애유아어머니와 비장애유아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7-26.
- 이경희 (1993). 장애아동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의 구조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혜령, 이기학 (2003). 종교성향과 강박적 성격특성이 사고-행동 융합에 미치는 영향. 2003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59-460.
- 임해용 (1994). 정신지체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경구, 김교헌, 조신웅, 노명래, 손정락 (1994). 다차원적 대처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114-135.
- 전경구, 김교헌 (1996).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통합적 모델, 제어 이론적 조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34-65.
- 채서일 (2003).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최영희 (2003). 종교 유무에 따른 정신지체 어머니의 가족환경 변인별 가족 스트레스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2006). 발달장애유아 아버지와 비장애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 행동.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덕용,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1993년 한국

- 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05-512.
- 허찬 (2006). 종교성향,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심리적 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현나 (2002).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lport, G. W., & Ross, J. W.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4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adley, R., Schwartz, A. C., & Kaslow, N. J. (200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Women With a History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Religious Cop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6), 685-696.
- Bris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2-111.
-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 relations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 433-440.
- Chang, E. C., Sanna, L. J., & Yang, K. M. (2003). Optimism, pessimism,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US and Korea: a test of a media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195-1208.
- Folkman, S., & Lazarus, R. S. (1990). Coping and emotion. In N. Stein, B. Leventhal, & T. Trabasso (Eds.),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Approaches to emotion*. NJ: Erlbaum.
- Gall, T. L. (2006). Spirituality and coping with life stress among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30*, 829-844.
- Gilbert, K. R. (1989). *Religion as a resource for bereaved parents as they cope with the death of their child*.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New Orleans, LA.
- Kark, J. D., Goldman, S., & Epstein, L. (1995). Iraqi Missile Attacks on Israel: The Association of Mortality with a Life-threatening Stressor.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3*, 1208-1210.
- Koenig, H. G., Cohen, J. J., Blazer, D. G., Kudler, H. S., Krishnan, K. R., & Sibert, T. E. (1995). Religious coping and cognitive symptoms of depression in elderly medical patients. *Psychosomatics, 36*, 369-375.
- Kolchakian, M. R., & Sears, S. F. (1999). Religious Coping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8*(2), 115-125.
- Lazarus, R. S. (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 1-21.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u, L. (1994). University Transition: Major and minor life stresso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Medicine*, 24, 81-87.
- Mattlin, J. A., Wethington, E., & Kessler, R. C. (199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103-122.
- McIntosh, D. N., Silver, R. C., & Wortman, C. B. (1993). Religion's role in adjustment to a negative life event: Coping with the loss of a chi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812-821.
- Oxman, T. E., Freeman, D. H., & Mannheimer, E. D. (1995). Lack of social participation or religious strength and comfort as risk factors for death after cardiac surgery in the elderly. *Psychosomatic Medicine*, 57, 5-15.
- Pargament, K. I., Ishler, K., Dubow, E., Stanik, P., Rouiller, R., Crowe, P., Cullman, E., Albert, M., & Royster, B. (1994). Method of Religious coping with The Gulf War: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 347-361.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practice*.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Pargament, K. I., Koenig, H. G., & Perez, L. M. (1998).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Initi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COP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Pargament, K. I., Smith, B. W., Koenig, H. G., & Perez, L. M. (1998). Pattern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with Major Life Stressor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710-724.
- Park C. L., & Cohen, L. H. (1993). Religious and nonreligious coping with the death of a frien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7, 561-577.
- Park, C., Cohen, L. H., & Herb, L. (1990). Intrinsic religiousness and religious coping as life stress moderators for Catholics versus Protesta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62-574.
- Pearce, M. J. J., Singer, J. L., & Prigerson, H. G. (2006). Religious Coping among Caregiver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5), 743-759.
- Rioli, L., & Savicki, V. (2003). Optimism and coping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ronic stress and burnout. *Psychological Reports*, 92(3), 1215-1226.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 Siegle, J. M., & Kuykendall, D. H. (1990). Loss, widowhood,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519-524.
- Smith, T. B., & McCullough, M. E. (2003). Religiousness and depression: Evaluation for a main effect and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29*(4), 614-636.
- Spielberger, C. D., & Gorsuch, R., & Lushene, R.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tone, A. A., & Kennedy-Moore, E. (1992). Assessing situational coping: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H. S. Friedman (Ed.), *Hostility, coping & heal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ix, A. P., & Frazier, P. A. (1998). The use of religious coping during stressful life events: Main effects, moderation, and medi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411-422.
- 원 고 접 수 일 : 2008. 3.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8. 6. 25
게 재 결 정 일 : 2008. 8. 8

Religious Orientation and Anxiety: The Mediating Roles of Religious Coping and Optimism

Hye-youn Jo

Ewha Womans University

Eun Jung Son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the care-givers of handicapped people with normal groups in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coping, anxiety, and optimism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faced by people suffering heavy stress. The participants were 294 Christians (147 care-givers, 147 normal group). The results of analyses indicated that, (a) care-givers had more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negative religious coping, anxiety, but less optimism than the normal group, (b) in contrast to the normal group's results,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was not correlated with other variables for care-givers, (c) for care-givers,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and optimism mediated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anxiety, (d) for the normal group, negative religious coping and optimism mediated between them.

Key words: religious coping, optimism, religious orientation, anxiety, stress, care-givers of handicapped person